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明 會
 編輯人 金 會
 印刷人 金 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龍宮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營口座: 010983-31-0513119
 私函: 서울 清涼郵遞局 137號

會議錄

87年度定期總會時

87年度 大宗會20次定期總會
 是日 五月三日 上午十一時
 부터 下午四時半까지 서울 東
 大門區 龍宮洞 龍宮洞비밀에서
 三百五十餘名 宗親으로 하여
 금 盛況裡에 끝마쳤고, 그 結果
 를 本報 第17號에 掲載하여 要
 旨을 紙上 報道한바와 같이 定
 款의 規程에 依한 合法的인 節
 次로 圓滿히 이루어졌다. 事
 實은 當日 參席하신 宗親이라
 면, 누구나 다 알고있는 事實
 이다. 總會에 參席하지도 아
 니했을 뿐 아니라, 大宗會報
 차 반아보지 못한 分들로 부
 터 大宗會의 發展을 걱정하는
 나머지 「總會의 進行過程을 보
 다 詳細히 周知시켜달라」는 要
 請의 宗論이 播多함으로 當
 日 現場에서 採録한 錄音을 拔
 萃 會議錄을 作成 그中에서 要
 旨을 拔萃 掲載하여 全國宗親
 에게 周知의 徹底를 期하고 大
 宗會의 旗幟下에 團合結束되어 祖
 上님의 홍콩하신 勳業을 더욱
 顯揚하고 宗親間의 和親을 敦
 篤히 할 수 있는 基盤을 固히
 주실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
 니다. 다음 會議錄은 會議場所
 에서 錄音한 것을 拔萃하여 事
 實 그대로를 掲載합니다.

一. 參席者: 三五四名 (接受人
 員 三三八名, 從事員 一六名)
 司會(泰日·按廉使公派)·午前
 11時20分에 出席人員 二一五
 名을 點檢發表하고 開會를 宣
 言하다.
 이어서, 國旗에 對한 敬禮와
 先祖 英靈에 對한 默念을 宣
 하다.
 開會辭
 會長(明會)·議長席에 就하여
 開會辭을 하다(省略).
 會議錄朗讀
 常任副會長(留)·前年度 會
 議錄의 重要件만을 朗讀(省
 略).
 經過報告
 會·一九八六年 四月一日 부
 터 一九八七年 三月 三十一
 日 까지 이루어진 大宗會의
 經過狀況과 事業計劃等을 報
 告하다.
 祝賀牌 및 賞牌 授與
 。 善行牌·韓東婉 女史(郡事
 公派)
 祝賀牌·富鋪 外 五名의 博
 士學位 取得者
 以上 七名에게 賞牌와 副賞
 을 授與함
 決算報告 및 監査報告
 監事(卿辰)·一九八六年度 決
 算報告를 豫히 配布한 油印
 物로 說明하러하자, 時間을
 短縮하기 위하여 油印物로 各
 自 檢討하자는 動議에 따라
 이를 全員贊成을 얻어 省略

하고,
 一九八六年 四月二일부터 一
 九八六年 三月 三十一일까지
 의 一九八六年度 會計年度에 對
 한 監査를 實施한 結果 錯誤
 없이 正確하였으므로 이에 報
 告한다. 監事報告가 있었
 다.
 臨時議長 選出
 會長·지금 時間이 12時半입니
 다. 다음 順序는 任員選出을
 해야 되겠습니다.
 干先 臨時議長을 選出해서 任
 員選出을 主管하도록 해야 하
 는데 그 選出方法은?
 海濱(按廉使公派)·臨時議長은
 忠北道 宗親會長이요, 清州市
 宗親會長을 兼任하고 계신 提
 學公派 宗親會長 得榮 氏를
 推薦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三請)
 在鴻(提學公派)·이제 臨時議
 長 한 분을 推薦하셨는데 저
 는 다른 意見을 提議합니다.
 臨時議長을 選出, 進行함은,
 會議規定上 妥當하다. 그런데
 다만 各派會長이나 現執行部
 가 여기에 臨하게 되면 적지
 않은 疑惑을 사게되니, 그러
 한 職責이 없는분을 呼薦해
 서 執行하는 것이 妥當하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任員選出을 해왔읍니다.
 아까 會會 氏께서 말씀한 바
 와 같이 定款을 變正修正했
 다고 하는데 長久한 時間
 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執行部가 20년이 가
 잡다고 推想됩니다. (中略)이
 번에 改正할 定款案을 보니
 任期 2년이 3년으로 되어
 있더군요, 여러번이 이 定款
 을 通過시킨다면 過去 20년
 푸라스(十) 3年해서 20년이

介紹한다는 것은 모순입
 니다. 結果나 내리주십시오」
 宗會(大司成公派)·45名입니다
 會長·종읍니다. 榮昌宗親이 85
 票, 得榮宗親이 45票, 이렇게
 結果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여기에
 過半數의 規定을 適用시켜야
 하는지요? 이렇게 票數가 적
 은 것은 大多數의 宗親들이
 모르고 있으니 다시 紹介해
 달라는 要請도 있습니다.
 榮昌(按廉使公派)·제가 榮昌
 이올시다. 저는 宗事가 어떻
 게 돌아가는지 全然白紙입니
 다. 그런데 아까 在鴻氏께서
 臨時議長을 보라하는데, 아까
 動議집에서 말한 바와 같이
 宗務에 從事하여 內幕을 알
 아지지 않는 全然모르는 臨時
 議長을 두고 曰可曰否하면
 時間을 끌고 있으니 무슨
 政黨도 아니고, 社會團體도
 아는데 같은 할아버지의 後
 孫으로서 여기 무슨 利害關
 係가 있다고, 自己意思에 맞
 지 않는다고 固執을 해서 뭐
 가 되겠읍니까? 그래서 저
 는 臨時議長 推薦을 辭退함
 니다.
 會長·이제 榮昌宗親께서 臨時
 議長 推薦을 辭退하신다고 선
 언하셨습니다. 정말 尊敬해
 서 마지 않습니다. 우리 宗
 親은 이렇게 조용하게 해야
 지, 그래서선 안된다는 말씀
 도 하셨습니다. 이점에 對해
 서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在鴻·改議집에서 拋棄를 했다
 면 當然히 動議집으로 돌아
 가는 것이 妥當합니다.
 會長·異議없으시지요?
 (拍手, 滿場一致 可決)
 得榮·(議長席에 登壇) (前略)
 지금부터 任員選出을 하겠는
 데 그 方法이 投票·銜衡委員
 制·呼薦等 여러가지가 있는
 데 어떻게 할까요?
 潤會(按廉使公派)·세가지 方
 法中에서 銜衡委員制로 할것
 과 그 銜衡委員은 各派會長
 즉 忠烈公할아버지 後孫이 15
 派가 있으니 그 15派의 會長
 으로 銜衡委員會를 構成해서

任員選出을 할것을 正式 動
 議합니다. (再請·三請)
 在鴻·아까 말씀대로 時間도 모
 래고 그 範圍를 넘어서 周
 邊으로 흘러가니까, 時間만
 지났읍니다. 빨리 끝내기 위
 해서 口頭呼薦을 해서 票決
 로 公平하게 選出해야 합니
 다.
 得榮·지금 在鴻宗親께서 改議
 가 있었는데 이에 贊同 하십
 니까? (再請·三請)
 在股·(再改議를 했으나, 動議
 案과 같은 內容으로 再改議
 를 取消하다)
 ※動議와 改議의 兩案을 票決
 한 結果 改議 六五票, 動議
 一三五票로서 臨時議長은 各
 各 過半數未達로 無効를 宣
 言하다.
 在寬(書雲觀正公派)·臨時議長
 께서 過半數未達로 無効라 하
 셧는데 公正한 檢票를 하기
 위해서 檢票委員會를 選出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在光(翼元公派)·이미 자신분
 도 말고 밖에서 있는 분도
 많으니 모두 入場케해서 現
 在 在席人員으로 하여금 過
 半數 票決을 합시다(再請·三
 請) 可決
 得榮·지금 在光氏의 發議대로
 現在 在席會員을 確認하기 위
 해서 밖에 계신분은 房안으
 로 들어오게 하여서 다시 點
 檢하기 위해 檢票委員會를 指
 名하겠읍니다. 按廉使公派
 在福·翼元公派 在光·都評議
 公派 熙得을 指名하니 이제
 부터 在席人員點檢과 檢票에
 臨해주시오.
 ※檢票委員會 點檢한 在席人
 員 二二三名
 得榮·在席會員이 二二二名입
 니다. 이제 在席人員으로 過
 半數 票決을 하겠읍니다. 口頭
 呼薦制로 改議집에 贊同하셔
 는분 舉手하십시오. (檢票結
 果 一〇五名) 다음은 動議집
 에 贊同하셔는분 舉手하십시오.
 (檢票結果 一一五票)
 口頭呼薦制를 贊同한 票가 一
 〇五票 銜衡委員會制를 贊同한
 票가 一一五票 이어서 動議
 집이 過半數得票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各派會
 長님들은 다 나와주세요.
 ※密直司使公派會長 惠默氏等
 一三名(三派는 缺席)이 同建
 物內 別室에서 다음과 같이
 任員을 選出하다(銜衡委員會
 會議錄은 四面參照)
 會長·明會(留)·常任副會長
 崙會(留)·副會長 相祺(留)
 泰亨(新) 監事 卿辰(留)
 在光(新) 但理事選出은
 前例에 따라 各派會長에게
 派人員比例에 依하여 推薦을
 委任하여 왔으니가, 總會에서
 關與할 問題가 아니다」로 可
 決함.
 ※臨時議長 得榮氏가 銜衡委員
 이 選出한 以上의 任員을 總
 會에 報告하고 下壇하다.
 一九八七年度 豫算案 審議
 ※豫算案은 時間關係로 提案
 說明은 油印物로 代하고 無
 修正通過됨.
 定款改正案 審議
 定款改正案은 定款改正委員
 會에서 起草하고 八次의 審議
 를 거쳤고 다시 理事會에 回附
 審議하여 86年度 總會에 上程
 하였으나 否決되고 다시 三
 四次의 會合으로 定款改正委員
 會에서 修正, 理事會에서 審議
 本年度 總會에 上程하였으나,
 「時間도 이미 늦었고, 退場
 한분도 많으니, 理事會에
 一任하자」
 는 書雲觀正公派 在寬 氏의
 動議가 萬場一致로 可決되었
 다.

이 회보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
 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게 되지요. 그래서 臨時議
 長은 現執行部와 關係없는
 分으로 指名하고, 이것은 現
 분이던 金公派이던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選任하도록 하
 는 것이 道理라고 생각해서
 過去에 여기에 參與한 일이
 없고 또 獨立運動을 하였고
 지금은 公益團體에서 著名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行列로
 봐도 榮字인 榮昌大父를 推
 薦합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執行케해서 偏見이 없
 고 疑惑이 없도록 이번에 좀
 잘해 봅시다.
 (再請·三請)
 ※이어서 動議를 主唱하는 海
 濱 氏의 發言과 改議를 支持
 하는 坡會(按廉使公派) 氏의
 發言, 그리고 動議를 支持한
 在股(副使公派) 會長의 討論
 이 있었다.
中 略.....
 會長·우리가 會議을 하는데
 이 모두가 和氣藹藹한 분위
 기에서 進行하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推薦하신분은
 得榮宗親을 두번째는 榮昌宗
 親을 推薦하는 改議가 있었
 읍니다. 또 推薦하신분이 안
 계시면 改議부터 문졌읍니다.
 榮昌宗親을 支持하는분은 舉
 手해 주십시오.
 (榮昌 85票)
 ※得榮 85票 亂亂해서 確實한
 檢票가 困難하였다
 다시 檢票委員會를 選出해서 舉
 手可決를 하려했으나, 推薦을
 받은 두분은 어떠한분들인지
 모르니 다시 紹介해달라」는
 要請이 있었다.
 在東(翼元公派)·會議進行上 이
 미 動議집까지 檢票가 끝난
 事實을 原點으로 돌아가다

密直司使公(諱七祐)設壇告白通告

開城에서 殞命하시고, 長子 江華留守公(諱天儉)이 誣禍로 高
 原으로 坐謫됨으로 인해서 後孫이 咸南地方에 留着世居하게
 되니, 墓所가 失傳된지 六百年이 넘게되어, 歲一祭의 香火가
 闕함을 世傳之遺恨으로 痛嘆해 오던바, 今番에 越南하여서 宗
 親會會長 惠默 氏를 爲始해서 在京後孫들이 뜻
 을 모아 다음과 같이 設壇하고 告由를 奉行함을 玆以 通告하
 나이다.

告由日時: 一九八七年十一月八日 十二時
 設壇場所: 京畿道 抱川郡 一東面 社稷里
 安東金氏密直司使公派宗親會 白

日時: 一九八七年五月三
 日(日) 午前十一時
 場所: 서울 忘憂洞 龍宮
 洞 龍宮洞비밀에서

一九八七年度二十次定期總會
 會議錄

密直司使公(諱七祐)設壇告白通告

告由日時: 一九八七年十一月八日 十二時
 設壇場所: 京畿道 抱川郡 一東面 社稷里
 安東金氏密直司使公派宗親會 白

〔前號에서 계속〕
 늦어질수록 가을에 이르러가
 지, 삼별초(三別抄)의 도량
 (跳梁)은 치열해졌다. 전라도
 의 공미(貢米) 八백석의 약탈,
 충청도 고란도(孤瀾島)에 있
 었던 조선소(造船所)의 습격,
 함포(合浦)와 거제도(巨濟島)
 의 병선(兵船)의 분회(焚毀)
 등 그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
 났다. 특히 고란도(孤瀾島)의
 조선소(造船所)의 습격은 머
 칠동안 계속 일어나서, 병선
 (兵船)이 전부 타버리고, 선
 장(造船匠)은 납치되어가고, 조
 선(造船)의 관리(官吏), 공인
 (工人) 등은 한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죽여버렸다. 이러
 한 사건은, 원(元)나라의 고
 려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반항
 (反抗)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수비가 허술한 각 주현
 (各州縣)에 침입하여, 그 관
 리(官吏)들을 생포(生捕)하고
 농어촌(農漁村)의 약탈 행위
 는 완전한 해적행위(海賊行爲)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뿐
 만 아니라, 점차 그들이 선단
 (船團)을 조직하여 경기도의
 영흥도(靈興島)에 내습(來襲)
 하고, 근해(近海)를 횡행(橫
 行)하게 되어 지금에 와서는
 그냥 방치(放置)해서는 아니
 되게 되었다.

風濤 (18) 井上靖 著

金崙會 譯

이 해연말에, 홍다구(洪茶
 丘)는 남(南)으로부터 개경
 (開京)에 올라와서, 곧 바로
 몽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는 삼월에 또 다시 개경에 되돌
 아와서, 원종(元宗)을 알현
 (謁見)하고, 세조(世祖)로 부
 터의 탐라(耽羅) 정벌명령을
 전달했다. 작전명령은 하루만
 에 내려졌다. 혼도(忻都)와
 홍다구(洪茶丘)가 몽고병(蒙
 古兵)을 인솔하고, 김방경(金
 方慶)이 고려군의 통솔자가
 되었다. 고려가 세조(世祖)의
 명에 의해서 고려각도(高麗各
 道)에서 건조(建造)한 병선
 (兵船)을 전부 남해로 돌렸다.
 병선수(兵船數)는 백 척이
 넘었다. 그리고 병력은 몽고
 군(二萬), 한군(漢軍) 二萬, 고

려군 六萬이라는 대규모의 병
 력이었다. 고려는 때문에 자
 고을의 수비병을 전부 동원하
 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러한 작전규모에서 생 각
 할 때, 원종(元宗)도 김방경
 (金方慶)도, 탐라정벌이 단순
 히 삼별초(三別抄)를 토벌하
 는 데 그친다는 의미만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를 리
 가 없었다. 다음날 일본을 칠
 정토군(征討軍)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확
 실해졌다. 원종(元宗)과 김방
 경(金方慶)은 六萬의 군사를
 징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라는 것을 홍다구(洪茶丘)에
 호소했으나, 세조(世祖)로 부
 터 이번 작전의 전권을 받
 은 홍다구(洪茶丘)의 귀(耳)
 를 돌리게 할 수는 없었다. 홍
 다구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세조(世祖)의 명령이라
 고만 하였다. 때문에 김방경
 (金方慶)은 그만한 인원수를
 출병하는데 맞추어 징집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김방경(金方慶)은 전국에서
 모은 六萬의 고려병을 인솔하
 고 출동하는데 있어, 원종(元
 宗)에게 말하였다.
 「탐라에 도사라고 있는 삼
 별초는 한사람도 남김없이 시
 체가 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
 습니다. 방경(方慶)도 용서치
 않고, 그들을 칠 작오입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이점을 허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元宗)도 이것을 양
 해하였다.

탐라정벌의 여러 병단(兵團)
 이 나누어 향하여 개경을 진
 발한 자가 얼마되지 않아서, 꾸
 일년만에 조양필(趙良弼)의
 일행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개
 경에 들어왔다. 조양필(趙良
 弼)은 무척 고생하였다. 일본
 간 일본에 머물러 있었어도,
 태재부(太宰府)에 억류되어,
 수도(首都)에는 들어가 지 못
 하고, 이반에도 또 국신사(國
 信使)의 역할을 못하고 돌아
 온 것이다.
 원종(元宗)은 조양필(趙良
 弼)을 초청하여 그 노고를 위
 로하고, 백은(白銀)세근, 저포
 (李布)모시 열필을 하사했
 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루하
 지(達魯花赤)의 이익(李益)
 도 또한, 조양필에게 물건을
 증정하려고 하였으나, 조양필
 은 받지 않으면서,
 「이것은 결국 고려백성으로
 부터 착취(擄取)한 물건이다.
 양필(良弼)은 이것을 받을 수
 가 없다.」
 고 말하였다. 조양필은(趙良
 弼) 일본에 가기 위하여 반도
 (半島)를 횡단(橫斷)해서 함포
 (台浦)까지의 왕복길을 두차례

나 되풀이 했기 때문에 고려의
 지방민의 생활이 곤란한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일로,
 이와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
 다고 생각되었다. 그 자리에서
 조양필(趙良弼)은,
 「일본은 원나라의 내습을 미
 리 알고 있었던 모양으로서, 그
 러한 풍설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듯 하였읍니다. 해변의 방
 비도 또 엄중하게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엿읍니다. 일본의 태도
 가 이와같은 이상, 일본정벌의
 군사를 진발시키는 것은 필정
 (必定)의 사실이라고 생각됩니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리하
 음소서」
 하고 말하였다. 원종은 조양
 필(趙良弼)의 시선이 일본(日本)
 (暖間)이었지만은 자기의 눈에
 강하게 사모치는 것을 느꼈다.
 만일 조양필(趙良弼)이 자기의
 일본행(日本行)과는 별도로, 그

이전에 고려가 사자(使者)를 일
 본에 파견하였던 것을 알고 있
 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였다. 조
 양필(趙良弼)은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혼
 자서가 가슴속에 감추고 원종(元
 宗)에게 고려가 불완전 일어서
 지 않으면 아니 될 것에 대하여
 자오할 것을 강조하지 않았는
 가 생각되었다.
 원종(元宗)은 이 원사(元使)
 에 대하여 은근히 호의를 느꼈
 다. 호의(好意)를 갖게 된 것은
 그러나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
 다. 고려에 들어오는 다른 몽
 고의 관리들과는 조양필(趙良
 弼)은 어딘가 달랐다. 일본 국
 신사(國信使)로서 개경(開京)
 에 들어와서 일본에 건너갈 때
 까지 몇달간을 개경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간 고려의 국경(國
 政)에 대하여는 아무 간섭(干
 渉)도 하지 않고, 자기의 말은
 바 임무와는 틀린다는 생각으
 로서, 자기 한사람의 태도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최초로 일본
 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장막(張幕)만을 세조(世
 祖)에게 보내고, 자기는 두번째
 의 도일(渡日)까지 개경(開京)
 에 머물러 있었다. 세조(世祖)
 에게 자기를 변명할 태도를 취
 하지 않는 것도 제삼자로서 바
 라보는 기분도 좋았다.
 조양필(趙良弼)이 원나라에
 돌아가기 위하여 개경을 출발
 하기 한달쯤 되어서, 전선(前線)
 의 삼별초(三別抄) 토벌군으로
 부터 첩보(捷報)가 들어왔다.
 혼도(忻都)·홍다구(洪茶丘)·김
 방경(金方慶) 삼장(三將)이 인
 술하는 수륙군(水陸軍) 一만명
 은 나주(羅州)·번남현(潘南縣)
 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각
 각 세 방면으로부터 탐라도耽
 羅島에 상륙(上陸)해서, 삼별
 초(三別抄)의 본거지(本據地)
 인 탐라성(耽羅城)을 포위했다.
 그리고 성(城)을 부수고, 수령
 김통정(首領金通精)은 자살하
 고 부하의 삼별초(三別抄), 일
 천삼백명은 나와서 항복(降服)
 했다. 이렇게 해서 지원 七년
 (至元七年·一二七〇年) 六月이

래 四年間에 걸쳐서 반항적(反
 抗的) 태도를 취하는 강도(江
 都)의 특별경비대(特別警備隊)
 의 병란(兵亂)은 지원십년(至
 元十年·一二七三年) 四月 여기
 서 완전히 수습되었다.
 오월(五月)·삼별초토벌(三別
 抄討伐)의 병단(兵團)은 개경
 (開京)에 줄을 이어 개선(凱旋)
 하고 돌아왔다. 제일 늦게 유
 월(六月)에 개선(凱旋)하고 들
 아온 김방경(金方慶)에 의하여
 원종(元宗)은 의외(意外)의 보
 고를 받았다. 그것은 탐라도
 (耽羅島)가 원(元)나라의 직할
 지(直轄地)로 될것같은정세(情
 勢)에 있다는 보고였다. 탐라도
 (耽羅島)에는 몽고병(蒙古兵)
 五백명과 고려병(高麗兵) 二백
 명을 남겨두고 왔는데, 이러한
 주둔병력(駐屯兵力)의 할당(割
 當)은 홍다구(洪茶丘)의 지시
 (指示)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였다. 김방경(金方慶)의 말에
 의하면 고려병(高麗兵)의 주둔
 (駐屯)은 당연(當然)한 것이지
 마는 몽병(蒙兵)의 주둔(駐屯)
 은 적어도 그것이 고려병의 이
 배(二倍) 이상의 병력(兵力)을
 주둔(駐屯)시켰다는 것은 무엇
 인가 석연치 않은데가 있다고
 말하였다. 원종(元宗)의 강력
 (三別抄)가 무너진 이상, 혼도
 (忻都)·홍다구(洪茶丘)등의 발
 언(發言)을 김방경(金方慶)은
 누를 수가 없었다.
 이 김방경(金方慶)이 생각하
 고 있던 것은 그로부터 二개월
 조(世祖)의 명(命)을 띠고 개
 경(開京)에 들어왔다. 한사람은
 세조(世祖)의 명(命)을 띠고 개
 경(開京)에 들어왔다. 한사람은
 세조(世祖)의 명(命)을 띠고 개
 경(開京)에 들어왔다. 한사람은
 세조(世祖)의 명(命)을 띠고 개
 경(開京)에 들어왔다. 한사람은

이와같은 황망(慌忙)한 가운
 데 원종(元宗)은 조양필(趙良
 弼)이 연도(燕都)에서 지나간
 五월 세조(世祖)를 알현(謁見)
 하고 세조(世祖)로부터 경(卿)
 은 군명(君命)을 유(辱)되게 하
 지 말라고 일러라, 하는 말을 들
 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원종(元
 宗)은 그때 그 말을 자국(自國)
 에 호의(好意)를 가지고 있음
 이 틀림없는 한사람의 몽인(蒙
 人) 때문에 즐거운 기분을 갖
 었다. 오래간만에 암담한 호린
 하늘의 한구석에서 창공을 보
 는 것 같은 생각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先望省墓巡禮
 扶餘柳村宗親會
 ★지난 10월 18日, 忠南 扶餘郡
 柳村安東金氏 在扶宗親會에서
 是宗中總務 俊會氏의 案内로
 會長 泰旭氏 等 17名의 宗親이
 專費버스를 利用, 當日 코스로
 陵洞의 忠烈公先祖와 楡谷의 冷
 平國大夫의 墓所를 參拜하였다.

의미(意味)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구애(拘
 礙)치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탐
 라도평정(耽羅島平定)을 계기
 로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원종
 (元宗)의 주변(周邊)에서 움직
 이기 시작하였다. 六月 둔전정
 락사(屯田經略使) 혼도(忻都)
 는 세조(世祖)의 부름을 받고
 원(元)나라에 들어가, 계속해서
 七月에 김방경(金方慶)도 또 소
 환(召換)되어 원(元)나라에 갔
 다. 장병(將兵)과 관리들이 원
 (元)과 고려(高麗)사이의 왕래
 (往來)가 눈에 띄일 정도로 빈
 번해지고 조선감독사(造船監督
 使)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몇
 차례 걸쳐 개경(開京)에 들어
 왔다. 군량공급(軍糧供給)지연
 (遲延)에 대한 둔전경략사(屯
 田經略司)로부터의 독촉(督促)
 과 군량공급(軍糧供給)을 경감
 (輕減)해 달라는 백성들로 부
 터의 탄원(歎願)은 매일과 같
 이 여러가지 형태로 원종(元宗)
 의 주위(周圍)에서 일어나고 있
 었다.
 이와같은 황망(慌忙)한 가운
 데 원종(元宗)은 조양필(趙良
 弼)이 연도(燕都)에서 지나간
 五월 세조(世祖)를 알현(謁見)
 하고 세조(世祖)로부터 경(卿)
 은 군명(君命)을 유(辱)되게 하
 지 말라고 일러라, 하는 말을 들
 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원종(元
 宗)은 그때 그 말을 자국(自國)
 에 호의(好意)를 가지고 있음
 이 틀림없는 한사람의 몽인(蒙
 人) 때문에 즐거운 기분을 갖
 었다. 오래간만에 암담한 호린
 하늘의 한구석에서 창공을 보
 는 것 같은 생각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先望省墓巡禮
 扶餘柳村宗親會

祝發展

提學公派 金應洙

서울·銅雀區 鷲梁津洞 一三三-四四

翼元公派 金光會

大田市 中區 文化洞 四六五-一

按廉使公派 金忠會

서울·冠岳區 奉天七洞 一五一〇-一二

翼元公派 金秀一

서울·龍山區 靑坡洞 三街 一一二

按廉使公派 金泰錫

서울·강서구 방화一동 二四九-一五三

密直司使公派 金榮應

서울·西大門區 弘濟三洞 二七〇-一一二

按廉使公派 金聖會

서울·冠岳區 新林三洞 六一-一四五

電話: 八六二-一三〇六七



/ 특 / 별 / 기 / 고 /

자녀교육 학교에만 맡기지 말것

인간문화 연구원 원장 金道振 (按廉使公派)

청소년 교육은 어려운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 「말대답」은 오해하기 쉽고, 고치기 어렵고 교육에 지장을 준다. 어른 아이, 서로가 이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청소년 문제를 다루다 보면 부모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흔히 묻는 말이 「말대답은 아이들의 의사표시인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교육 측면에서 볼때 이를 금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더우기 청소년들로 부터는 이 말대답이 자기의 의사표시의 방법인데 이를 금한다는 것은 천만부당 하다고 항의를 받기 일쑤다. 이는 중대한 착오요 오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대답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 세상만사가 방법과 순서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듯이 말대답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말의 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전에 자기의사를 표시함으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말대답은 주로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이들은 어른의 경험 많고 식견 넓은 얘기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자기들 앞날에 참고로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대답으로 해서 어른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말대답은 어른들의 말을 중단시키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니 어른을 존경하는 우리의 미풍을 범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적 사고방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예의상에도 큰 실례를 저지르는 것이다.

청소년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자기의사를 내세워 이를 주장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른들은 그네들의 생각과 행동을 중시하고 이의 흐름을 관찰하여 좋은 점은 격려하고, 좋지 못한 점은 이를 발견하는 즉시 시정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단지 말대답과 의사표시를 혼돈내지는 오해해서는 안되겠다.

영국에 오랫동안 한국대사로 주재했던 인사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영국의 가정교육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말대답이었다.

영국에서는 말대답을 철저히 금한다는 것이다. 옆에 있던 친구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교육이기에 더욱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민주주의 교육이기에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의견을 잘 파악해야 하므로 말대답은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자기의 주장을 역설하였다.

요즘 국내 해외교포 사회할 것 없이 청소년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국가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그들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사건도 일으키지 않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청소년들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는 이를 수습하기가 매우 곤란 할 뿐 아니라 이시점에서 선도란 더욱 어려운 까닭이다. 만사가 그렇듯이 청소년문제도 미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인간교육이란 우리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고 하듯이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까닭에 어릴때 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교육이기에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할 수 있도록 심어주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성적도 좋으니 부모들은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과잉보호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주위에서 인정받고 자기의 생각이 굳어지고 주관의 서감에 따라 자연부모와의 대화가 필요없게 느껴지고 단절돼간다.

TV, 친구들과의 대화, 불량만화 등으로 느끼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와는 거리가 먼다. 당장 눈과 귀에 느끼는 쾌감과 원색적인 흥미들은 부모의 잔소리보다 설득력이 있다. 특히 해외교포사회에서는 가정에서 떠나 학교나 주위에 나가보면 전혀 딴판인 환경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모가 타이르려고 하면, 「공부할 시간됐어」「나중에 들을게」「엄마 나도 다하는데 무얼 그래

등으로 대화나 설득을 피하려 든다. 인생의 경험도 없고 식견이 부족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문명에만 사로잡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면은 등한히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물질위주의 개인주의가 지나쳐 이기주의로까지 치달게 된다.

한국 S여교 D교사는 성적이 우수한 S모양(18)이 수업 시간에 자제가 바르지 못해 바로하라고 나무랬다. D교사는 들은채도 앉히는 S양에게 일어서라고 재촉했으나 겨우 얼굴을 들었을 뿐 시선은 딴곳으로 향해 있었다. 화가난 D교사는 선생님에 대한 태도를 나무라자 S양은 고치면 되지 않아요라고 대들듯이 쏘붙였다.

K고교의 K모 여교사는 교정에서 교무실로 가는데 중 뒤에서 학생들이 「폐 색시한테, 요즘 재미가 좋습니까?」라고 농을 걸어왔다. K교사는 화가나서 교무실로 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들은 허죽허죽 웃으며 달아났다.

B고교의 K교사는 점심 시간

후에 담배를 피어물었는데 뒤쪽에서 학생들이 「야! 너만 피우니, 성냥좀내라」는 시밋조의 농담을 걸어왔다. K교사는 어안이 빙빙해 말문이 막혔었다고 했다

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태도나 자기들의 행동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선생님들의 기존가치관을 골동품처럼 느끼고 엮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학교에서 인간교육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네들 말대로 단지 지식전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청소년 사건발생의 원인을 잉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먼저 말한대로 걸으로는 공부 잘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미숙하고 무정경한 생각이 굳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 우리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부모들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말대답을 드려야 할까?

大司成公派 槐山 泰玉

近來에 各種 비열한 行事, 태 모, 不규, 시위 등이 있는가 하면 前無後無한 自己 先祖에 대한 各種 崇拜事業 등의 나무도 此의 한 現狀을 보고서 이 말대답이 되는 것인가? 하고 自問自答하며 筆을 들까 합니다. 世上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바쁜 마음과 고통을 겪고서 보고 넘기기가 어렵군요. 이런것을 참고 살아 갔다는 祖上님들도 힘 드셨으며 그 꼴을 안보려고 下郷해서 서사쳤지요. 淸宣史는 곧바로 마음을 갖는이라 생각됩니다. 왜 서두에 이 말을 쓰는가 하는 것은 다음 내용을 말하고 자 하는데 있다.

吾宗族이시며 國家的 으로는 屈指의 愛國者이신 白凡 先烈이 一個 憲兵 將校의 손에 의해 살해된 事實을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나무어어이 없는 처참한 變事이라. 제가 表現上, 마음과 表現이 一致가 안되는군요. 海諒바라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서 老人 들까지 生命을 尊重한다는 自由天地에서 나라를 위해 한 平生 生命을 바치신 分을 殺害한 者를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문시 된다. 아무리 잘 못이 있다 해서 殺人者를 햇빛을 보게 하는가? 과실치사도 殺人罪이거늘 어찌 祖國獨立을 一念으로 他國山河에서 苦闘하신 分을 숨지게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모든분들에게 다 시한변 생각할 문제가 아닐까요?

또 죽인 자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것이 良心 있는 人間이라면 自殺을 하였으리라. 그 측근한 삶을 살려고 分을 부지 해온 그 사람은 추호도 罪의 念이 없는가? 언젠가는 美 國 땅으로 살러 가려는 記事를 新聞을 통해서 보고 이것도 自由市民으로 生活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 오죽하면 몇번씩 죽음을 당할까? 왜 自省을 하지 못하는가? 그냥 넘어갈 일인가, 살면

서 몇몇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 서도 왜 公開치 못하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우리의 宗族이라기 보다 普遍한 立場에서도 할말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先烈의 偉大한 行實을 龜鑑삼아 살면서 막지 않은가요, 비술도 없는 祖上을 위장하는 이가 있는가하면 遺墟地를 마련하여 石物을 具設하여 놓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을 볼때 이 세상은 약삭바르고 金力과 헛말을 잘 하는 者가 出世하는 現實이라고 볼 때 이것이 累積되면 民族의 장래가 위협하다 아니 할 수 없군요. 解放直後 우리 歷史를 어떻게 歪曲하였는가 네델란드해에서 분사한 분을 어떻게 表現하였나 反省의 여지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일 사람을 殺害한 者를 무슨 忠誠한 者라고 放任 한단 말인가. 罪가 없다면 賞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역올한 四〇年 外國山河에서 家族도 잃어가며 倭놈과 견양한 드높은 衷情을 스러져 가게 하는가 항상 이 민족에게 不幸이 오지 않도록 우리 눈에 덮인 들판을 걸어 갈때 弱하지 않을가요. 우리는 꼭 宗人的 名譽를 걸고 밝혀 보시다

결음 하나라도 어지럽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무슨 뜻일까요 이런 意志 固執한 宗親이웃 民族이 이것이 崇慕 敦睦하는 모임이라고 볼때 적어도 우리 祖上님의 훌륭한 宗親을 이어 後世 宗親에게 繼承시키고 歷史의 誤謬를 바로잡는 일, 이것이 모임의 뜻이요, 또 無冠辱世人이 得冠榮達者로 碑文을 장식하고 金力을 浪費해 가며 旋閣閣을 세우는 時代에 어찌 實史 實話를 우리 後代人에게 矜持를 심어주지 않는지 勿論連續記載되고 있는 三別抄 風濤等은 좋은 史料로 관심 깊게 탐독하고 싶지요 그러나 現世代의 人物의 關志는 꼭 심어 주어야 할 일입니다. 一個 殺人者를 數十年두고 우리가 보고만 있다는 점 참으로 너무나 愧弱하지 않을가요. 우리는 꼭 宗人的 名譽를 걸고 밝혀 보시다

◆ 消 息 ◆

- ★ 지난 8月24日, 京畿道 華城郡 活草國民學校 講堂에서는 同校 校長인 書雲觀正公派 圭寬 宗親의 停年退任式이 많은 教育人事와 管内 學父母・宗親等, 100余名이 參席하여 盛大히 舉行되었다. 特別이 式典에서는 40余年間, 教育界에 몸담아 온, 그의 功績이 높이 評價되었고, 國民勳章 石橋章이 叙授되었다.
- ★ 淸州大學校 教授 文學博士 永秀(都評議公派)宗親은 7年間 同大學校 新聞編輯主幹으로 活躍하였는데, 지난 8月30日자로 同校 人文大學長에 就任하였다.
- ★ 지난 10月3日(開天節), 京畿道 漣川郡 媚山面 阿彌里 所在 崇義殿에서 丁卯年秋季大祭가 奉行되었다. 開城王氏가 主管하는 이날의 大祭에는 漣川郡守를 비롯해서 王氏本孫과 16功臣의 後孫 150余名이 參席하여 大盛況을 이루었다.
- ★ 開城尹公派에서는 지난 10月11日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開城尹公 壇所에서 男女 100余名의 後孫이 參席하여 歲享의 禮를 嚴肅히 奉行하였다.

87年度定期總會時 銓衡委員會會議錄

日時·一九八七年五月三日
下午二時
場所·忘憂洞 웅궁칼비집 別室

參席委員·密直司使公派 會長
惠默·開城尹公派 會長
會福·都評議公派 會長
錫·典書公派 會長
正 教·副使公派 會長
在 股·大司成公派 會長
理 在 福·都評議公派 會長
會 長 代 理 元 榮·提學公派 會長
派 會 長 得 榮·按廉使公派 會長
在 晚·翼元公派 會長
吉 成·書雲公派 會長
正 儀·會 長 代 理 寬 浩·正儀公派 會長
松 默·以上 12 名(安安靖公派·大護軍公派·判三司公派의 三派 會長 不 參)

得榮·나는 臨時議長으로 選出된 사람이지만 提學公派宗會長이기에 銓衡委員의 資格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在福·會議에는 議長이 있어야 하니까, 그만 여기서 議長을 보시지요.
得榮·議長이라기 보다 잠시 동안 會議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選出方法부터 말씀하시지요?
寬浩·먼저 會長團부터 選出을 하는데 우리 宗中에는 會長 하실만한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 중에서 몇 분을 推薦해서 會長 한 분을 뽑고 나면 副會長은 自然히 그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惠默·會長과 副會長은 材木이 다른데 어찌서 會長物望에 올랐든 분을 副會長으로 한단 말입니까? 會長과 副會長은 各 各 選出해야 합니다.
得榮·그렇습니다. 그런데 現會長은 여러번 留任되어왔으나 大宗會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明會會長 在任中이니 다시 한번 選出하는 것이 어떠하지요?

會福·理事選出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在晚·理事는 各派會長이 推薦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得榮·理事選出은 前例대로 各派의 人員比例에 따라 各派 會長에게 一任하여 왔으니 各派 會長에게 一任해두고 總會

에서 論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滿場一致로 可決)
得榮·그런데 任員改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대로 報告하겠습니까. 여러분 手苦하셨습니까.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三、年例定期總會는 五個面을 順次로 巡回開催하며, 場所의 選擇과 晝食提供은 該當面의 責任으로 하되, 招待는 家族同伴을 原則으로 하여 婦人의 參與를 促進함으로써 家族의 空氣를 和氣藹藹하게 進行한다.
四、一八九七年부터 實施하는 總會의 巡回開催로 節約되는 宗親會의 運營資金中에서 每年 拾萬圓씩, 五年間 五拾萬圓을 大宗會 中央本部에 寄託해서 獎學基金에 充當하게 한다.
創立後로 四、五年間 每年 列先祖의 歲享에 合同으로 參祀하는데, 安東의 忠烈公 陵所에 二次, 安養 文英公 墓所와 楊平 翼元公 墓所, 抱川 同福公以下 列位의 墓所 歲享에 延二百餘名의 會員이 參祀함으로써 崇祖理念과 睦族의 精神을 鼓吹시켰으며, 安東에 一次 參祀時에는 大을 百枚를 各祭官에게 贈呈하였으며, 二次에는 江華의 名物인 無紋祭席을 獻呈하였고, 楊平에 는 文書兩冊을 抱川에서 紀念타를 百枚를 贈呈함으로써 祖上에 對한 敬誠과 宗親에 對한 道理를 表하였다.
위와 같이 江華宗親會의 活動狀況과 運營의 概要를 紹介하였고, 仁植 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同祖의 後裔라는 矜持에서 尊祖와 睦宗의 精神으로 結束되어 相勸相讚하면서 友愛와 信義로 運營되는 江華宗親會에 對한 期待는 자못 크다.
江華宗親會 任員
會長·仁植
副會長·銀赫(江華面)
副會長·在學(內可面)
副會長·在斗(良道面)
副會長·明會(華道面)
副會長·在達(吉祥面)
副會長·根植(佛恩面)
監事·光植
監事·在駿
總務·炳默
理事二十六名은 紙面關係로 省略)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示範 江華郡宗親會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江華郡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江華島와 隣近島嶼로 이루어진 郡으로 나라의 哀患을 함께 겪은 歷史의 故庄으로서, 二百年餘世帶가 農業이나 商業, 或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이 江華郡에 宗親會가 創立된 것은 一八九〇年 八月 十五日이니, 全國의 宗親會로 가장 오래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때, 初代會長으로 選出된 仁植(初名 銀淳)氏는 專心專力으로 宗親會의 育成方案을 研究하고, 指導方針을 세우며, 運營에 萬全을 期하였고, 副會長을 비롯해서 全體會員이 이에 呼應해서 一致團結하고, 相互親睦을 敦篤히 하고 있어 實로 模範宗親會의 面貌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江華宗親會의 示範의 運營方法을 추려 몇 가지 紹介한다.
一、會員에게 會費나, 贊助會等 一切의 金品을 徵收하지 않고 運營한다.
(方法) 每世帶主는 加入時에 平生會費로 金壹萬圓을 納付하여야 하며, 總二百萬圓을 積立基金으로 해서 五個面에 比率로 分配貸與해서 年二分로 受入된 利子 四拾萬圓으로 運營費에 充當한다.
二、宗親會의 傘下에 相助會를 組織하고 會員의 加入金으로 四千萬圓을 徵收하여 六拾萬圓의 基金으로 初喪時에 賻儀金 拾萬圓을 捐助하며 各會員은 每回에 壹千圓씩 據出을 義務化하고 每年 總會時에 持參納付한다.

(歲享日程) (관호안은) (음력)

- 忠烈公諱方慶之墓 十一月二十九日(十月初九日) 慶北·安東郡祿轉面竹松洞陵洞
- 冷平國大夫竹州朴氏之壇十一月三十日(十月初十日) 慶北·安東郡豐山邑檜谷洞
- 尚書公諱愼之壇 (三月十六日)
- 文英公諱恂之墓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十一月二十七日(十月初七日) 京畿·安養市冠陽一洞後山
- 忠肅公諱承用之壇 (三月十六日)
- 文肅公諱永暉之壇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十一月二十八日(十月初八日)
- 福昌府院君諱永煦之壇 忠南·天原郡並川面佳田里桃汀 十一月二十五日(十月初五日) 忠南·清原郡梧倉面慕亭里
- 評理公諱厚之壇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三月十六日)
- 判慈惠院事公諱縝之壇 全南·天原郡並川面佳田里桃汀 十一月二十八日(十月初八日)
- 領三司事公諱葦之壇 忠北·清原郡梧倉面慕亭里 十一月二十五日(十月初五日)
- 掌令公諱玖之壇 忠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十一月二十四日(十月初四日)
- 掌令公諱莖之壇 京畿·始興郡儀旺面浦一里廣谷山 十一月二十一日(十月初一日)
- 密直司使公七祐之壇(設壇告白)十一月八日 京畿·抱川郡一東面社稷里
- 開城尹公諱七霖之壇 京畿·廣州郡草月面池月里 陽十月十一日(第二日曜日)
- 那事公諱七陽之墓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三月十六日)
- 典書公諱成牧之墓 全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十一月二十四日(十月初四日)
- 大司成公諱九容之壇 京畿·抱川郡蒼水面可養里 十一月二十一日(十月初一日)
- 都評議公諱九鼎之墓 慶北·義城郡義城邑業洞杏峴 十一月二十四日(十月初四日)
- 淑人牙山蔣氏之墓 慶北·義城郡點谷面西邊洞大岱 十一月二十六日(十月初六日)
- 大護軍公諱儒之墓 (三月十四日)
- 提學公諱益達之壇 全南·羅州郡金川面竹村里玉峙 十一月



碩士學位論文

金方慶研究

清州大學校大學院史學科李相哲

● 略 歷 ●

- 1953年生
- 1981年 淸州大學 역사교육과 졸
- 1986. 8 淸州대학교 대학원 史學科 졸
- 현 淸州신흥고등학교 교사.

金方慶이 阿海와 더불어 三堅院에 주둔하고 珍島에 대하여 布陣하니 金方慶傳에 方慶이 阿海와 더불어 三堅院에 주둔하고 珍島에 對하여 布陣하니 賊이 노략한 船艦에 모두 괴이한 침승을 그리고, 江을 덮고 물을 비추어 움직이는 것이 나는 것 같아 형세를 당하지 못하였다. 배양 싸움에 賊軍이 먼저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突進하여 서로 勝負하기를 여러날 계속하였다. 이때 潘南人 洪贊, 洪機가 이르기를 “方慶 孔倫 등이 陰으로 賊과 서로 通한다”하니 阿海가 잡아 가두고 達魯花赤에게 移牒하니 達魯花赤이 方慶을 돌아오게 하여 贊 等과 對辨케 하고 參知政事를 蔡楨으로 대신 하였다.⁸¹⁾

고 하였다. 이로써 三別抄의 海上 勢力과 작전이 연합군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또 연합군측에서 실패를 거듭하여 시일만 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金方慶까지도 三別抄와 內通하였다는 誣告로 잡아 가두게 되었던 것이다.⁸²⁾ 날로 강성하여 가는 三別抄를 앞에 두고 軍의 중심인물인 金方慶을 方面하게 된 것은 開京政府의 큰 손실이었다. 그후 洪贊등의 誣告인 것이 밝혀짐에 元宗은 達魯花赤에게 청하여 金方慶에게 上將軍의 職을 주어 다시 三別抄를 토벌하게 하였다.⁸³⁾ 金方慶이 다시 陣容을 정비하여 12월에⁸⁴⁾ 珍島를 향하여 追擊케 되었으니 그때의 戰況을 金方慶傳에 보면

方慶이 珍島에 이르니 賊이 모두 배를 타고 旗幟를 盛張하고 징과 북소리가 바다에 높았다. 또 城위에서 북을 치고 떠들며 크게 소리 질러서 聲勢를 도우니 阿海가 겁이 나서 배에서 내려 羅州로 退屯코자 하거늘 方慶이 말하기를 “元帥가 만약 물러가면 이는 弱함을 보임이라 賊이 勝勢를 타서 長驅하여 오면 누가 敢히 칼날을 당하리요...” 하니 阿海가 敢히 물러가지 못하였다. 方慶이 홀로 軍사를 거느리고 공격하니 賊이 戰艦으로 逆擊하는지라 官軍이 다 물러나오거늘 方慶이 말하기를 “決勝은 今일에 있다”하고 賊中에 突入하니 賊이 포위하고 驅迫하여 가는지라 方慶의 士卒이 죽음으로써 싸웠으나 矢石이 다하였으며 또 모두 화살에 맞아 일어나지 못하였다.將軍 楊東茂가 賊의 衝突함을 입어 이를 擊退하니 賊이 풀고 가거늘 드디어 포위를 깨뜨리고 나왔다.⁸⁵⁾

라고 하였다. 三別抄의 전투력은 매우 우세하여 阿海가 겁을 내어 싸우려 하지 않자 金方慶이 홀로 賊中으로 突入하여 싸웠으나 큰 곤경에 빠졌었다. 阿海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로 연합군측의 軍勢는 더욱 멀치지 못하고 시일만 끌게 됨으로, 元宗 12년(1271) 正月에 阿海는 드디어 蒙古로 소환되고 3월에 忻都를 보내어 阿海를 대신 하였다.⁸⁶⁾ 그리하여 麗蒙 연합군은 同年 5월 珍島를 총 공격하게 되었으니 전투터 珍島 對岸에 三別抄와 대치하고 있던 金方慶, 忻都등은 高麗의 增發軍을 인솔하고 남하한 洪茶丘를 기다려 5월 15일에 珍島 총 공격을 실시하였다.⁸⁷⁾ 金方慶이 蒙將 折都 등과 左, 右, 中 三軍으로 나누어 세 方面으로 공격하여 賊을 분산 시키니, 三別抄는 연합군의 中軍을 대항하고자 碧波亭에 모였다. 이때 左翼인 洪茶丘 등이 측면에서 공격하니 三別抄가 무너졌다. 三別抄는 그동안 官軍과 싸워 여러차례 승리를 거듭한 결과 官軍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 방비시설을 소홀히 하였을 때 연합군의 총 공격을 받아 패배하고 나머지 무리는 耽羅로 들어가게 되었다. 三別抄를 격파한 金方慶은 남녀 萬餘人과 戰艦 수십척, 쌀 4 천석등을 거두어 開京으로 실어 보냈다.⁸⁸⁾

耽羅에 들어간 三別抄는 그곳에 内外의 두 城을 쌓고 방비를 엄중히 하였으며,⁸⁹⁾ 맹활동을 전개하여 자주 본토 연안을 습격하여 漕運船과 戰艦 등을 공격하고 약탈하였다.⁹⁰⁾ 그리하여 元宗은 元에 表를 올려 前後 약탈된 배가 20척, 米穀 3천 2백여 석, 살해된 자가 12인이러며 三別抄의 기세등등함을 말하고 高麗는 兵器를 다 회수 당하였으니 元나라 軍사로 하여금 해안지대 경비와 三別抄를 토벌해 주도록 요청하였다.⁹¹⁾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元은 8월에 사신을 보내 耽羅 공략의 대책을 강구케 하자, 洪茶丘는 우선 金通精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의 조카 등 5명을 耽羅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아무런 效果가 없었다.⁹²⁾ 그후에도 三別抄는 貢米를 약탈하고 戰艦을 불사르고 기세가 등등하였다. 이에 高麗는 元宗 14년(1273) 正月에 金方慶을 叛追討事로 삼아 元將 忻都, 洪茶丘 등과 함께 耽羅를 공격하게 하였다.⁹³⁾ 그리

하여 中軍行營 兵馬元帥 金方慶이 우선 鎭에 기병 8백명으로 忻都 등과 出征케 되었다.⁹⁴⁾

麗元 연합군은 潘南縣(羅州)에 집결하여 珍島공격 때와 같이 三軍의 部署를 다시 編成하였다. 中軍을 중심으로 左, 右 兩翼으로 나누어 中軍은 金方慶과 忻都가 지휘하였다. 그리하여 연합군은 潘南에서 渡海進攻의 準備와 날씨의 순조로움을 기다려 출발하였으나, 처음에는 바람과 파도에 많은 배가 침몰하였다. 金方慶이 忻都 등과 더불어 먼저 楸子島에 건너가 바람을 기다려 4월28일(庚戌)에 不意의 공격을 감행하여 金方慶등이 지휘하는 中軍은 威德浦에 상륙하여 猛攻을 가하였고, 左軍은 飛揚島로 부터 공격하여 三別抄로 하여금 방어의 겨를도 없이 무너지게 하였다.⁹⁵⁾ 그리하여 對蒙 세력 淸州의 牙城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閏 6월에 金通精의 시체를 거둬들여⁹⁶⁾ 三別抄는 歷史上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金方慶은 元宗 11년(1270) 59세 때부터 元宗 14년(1273) 62세 때까지 麗蒙(元) 연합군의 高麗측 將帥로 출정하여 소극적인 蒙古軍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전투에 임하였다. 또 그는 三別抄 토벌과정에서 誣告로 말미암아 押送되어 達魯花赤의 審問을 받다가 無罪釋放되어 다시 토벌에 임한 일이 있었던 바와 같이 굳은 意志로 公私의 難關을 극복하였다.

2. 日本 遠征과 金方慶

蒙古의 日本 遠征 시도는 이미 元宗 7년(1266) 11월에 高麗에 사신을 派遣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蒙古는 黑的, 殷弘등을 高麗에 派遣하여 對日 교섭의 先導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⁹⁷⁾

註 81) 〈高麗史〉世家 卷26 元宗11年 9月 己亥條 金方慶傳에는 全州副使 李彬

註 82) 〈上揭書〉同年 9月 甲辰條

註 83) 〈上揭書〉列傳 卷17 金方慶傳

「方慶與阿海 屯三堅院 對珍島而陳 賊於所掠船艦 皆畫怪獸 蔽江照水 動轉如飛 勢不能當 每戰 賊軍先鼓譟突進 互勝負 曠日相持 會潘南人 洪贊 洪機譏于阿海曰 方慶孔倫等 陰與賊相通 阿海執而囚之 移牒達魯花赤 達魯花赤令方慶還 與贊等 對辨 以參知政事蔡楨代之」

註 84) 〈高麗史節要〉卷18 元宗11年 11月條

註 85) 〈上揭書〉同年 閏11月條

註 86) 〈高麗史〉世家 卷26 元宗11年 12月 丁巳條

註 87) 〈上揭書〉列傳 卷17 金方慶傳

燥 方慶至珍島 賊皆乘船 盛張旗幟 鉦鼓沸海 又於城上 鼓譟大呼 以助聲勢 阿海怯下船 欲退屯羅州 方慶曰元帥若退是示弱也 而賊乘勝長驅 誰敢當鋒…… 阿海不敢退 方慶獨帥師攻之 賊以戰艦 逆擊之 官軍皆退 方慶曰決 勝在今日 突入賊中 賊圍之 驅迫以去 方慶士卒 殊死戰 矢石俱盡 又皆中矢 不能起…… 將軍楊東茂 以蒙衝突擊之 賊乃解去 遂潰圍而出

註 88) 〈上揭書〉世家 卷27 元宗12年 3月 丙寅條

註 89) 〈上揭書〉同年 5月 丁丑條

註 90) 〈上揭書〉列傳 卷17 金方慶傳

註 91) 〈上揭書〉世家 卷27 元宗13年 6月 乙卯條에 「時 賊既入濟州 築内外城 恃其險固 日益猖獗 常出擄掠 濱海蕭然」

註 92) 金堯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完)」 〈盡檀學報〉 제13권 1941年, PP. 60~61

註 93) 〈高麗史〉世家 卷27 元宗13年 6月 壬子條

註 94) 〈上揭書〉同年 8月 丙戌條

註 95) 上揭書 世家 卷27 元宗14年 2月 丙申條

註 96) 〈上揭書〉同年 2月 癸卯條

註 97) 〈高麗史節要〉卷19 元宗 14年 夏 4月條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

註 98) 〈高麗史〉世家 卷27 元宗 14年 閏 6月 丙辰條

註 99) 〈上揭書〉世家 卷26 元宗 7年 11月 癸丑條

前山林廳長
大宗會顧問

金 璨 會

(翼元公派)

서울·冠岳區 奉天 1洞 715-64

電話：885-2980

新韓精工

代表 金 在 鎮

서울·銅雀區 上道一洞六一九-13
電話：八一三一〇八〇四

密直司使公派

金 聖 會

서울·城北區 三仙洞 二街二八〇
電話：七四二一九七四六

大同綿業社

代表 金 榮 德

大邱市南區 鳳德洞 鳳德市場
電話：六六一五三〇六

翼元公派

金 昌 成

서울·冠岳區 奉天五洞 四八五-13
우영住宅 마동 三〇五
電話：八七九-13385

【前號에서 계속】

이때 世祖는 東征高麗軍의 都元帥로 前役과 같이 金方慶을 任命하였다.

이제 그렇다면 日本側은 어찌하였는가?...

五月三日 東路軍 四萬兵을 태운 戰船 九百艘을 出發하였다.

東路軍은 곧바로 日本으로 向하지 않고 巨濟島에 當分間 碇泊하였다.

五月二十一日에 東路軍의 一部가 上陸한 部隊는 高麗軍이

日本은 年前에 無學祖元이라 宋僧이 幕府의 執權인 北條時宗의 書狀을 받고 日本에 건너 後로 中國의 南部地方에

狀況에서도 構이지 아니하였다. 一二年一月에 世祖 후

비라이는 諸將에게 日本遠征의 進發令을 내렸다. 이때 江南軍의 總司令官으로 蒙古將軍아

라간(阿刺罕)을 任命하였다. 三月二十二日, 諸將은 燕京을 出發하는데 世祖는 特別히 訓戒하였다.

「日本은 우리 나라의 使者를 留置시켜, 보내주지 않았다. 朕이 卿들에게 遠征을 命한 것은 그 때문이다. 또, 朕이 漢人의 말을 들은 즉, 남의 나라를 取하는 일은 그 人民과 土地를 얻기 위함이라 하니, 實로 그러하다. 더욱이나 다 음의 일은 朕이 特別히 憂慮하는 것이로다. 卿들은 不和에 빠지는는 안될 것이다. 萬若 日本人이 卿들과 交涉할 경우에는 언제나 同心協謀해서 한 입과 같이 對答할 것이니라.」

이래서 東征의 大命이 내리고 드디어 그 一步를 發하게 되었다.

한편 高麗에서는 三月中旬에 金方慶이 合浦(馬山)를 向해 進發하였고, 四月에는 忠烈王이 合浦까지 가서 十八日에 日本再征의 幕은 열리고 말았다.

東路軍 四萬이 九百艘의 戰船을 分乘하여 合浦를 出發하였다. 五月三日이었다.

이제 再征日本의 幕은 열리고, 이때는 말을 수 없는 狀態에 突入하였다.

五月三日 東路軍 四萬兵을 태운 戰船 九百艘을 出發하였다. 그러나 東路軍은 곧바로 日本으로 向하지 않고 巨濟島에 當分間 碇泊하였다. 日氣關係인지? 물어 보아, 實은 六月中旬에 江南軍과 壹岐島에서 合流한다는 豫定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五月二十一日에 東路軍의 一部가 上陸한 部隊는 高麗軍이 日本은 年前에 無學祖元이라 宋僧이 幕府의 執權인 北條時宗의 書狀을 받고 日本에 건너 後로 中國의 南部地方에 狀況에서도 構이지 아니하였다. 一二年一月에 世祖 후 비라이는 諸將에게 日本遠征의 進發令을 내렸다. 이때 江南軍의 總司令官으로 蒙古將軍아 라간(阿刺罕)을 任命하였다. 三月二十二日, 諸將은 燕京을 出發하는데 世祖는 特別히 訓戒하였다.

「日本은 우리 나라의 使者를 留置시켜, 보내주지 않았다. 朕이 卿들에게 遠征을 命한 것은 그 때문이다. 또, 朕이 漢人의 말을 들은 즉, 남의 나라를 取하는 일은 그 人民과 土地를 얻기 위함이라 하니, 實로 그러하다. 더욱이나 다 음의 일은 朕이 特別히 憂慮하는 것이로다. 卿들은 不和에 빠지는는 안될 것이다. 萬若 日本人이 卿들과 交涉할 경우에는 언제나 同心協謀해서 한 입과 같이 對答할 것이니라.」

이래서 東征의 大命이 내리고 드디어 그 一步를 發하게 되었다.

한편 高麗에서는 三月中旬에 金方慶이 合浦(馬山)를 向해 進發하였고, 四月에는 忠烈王이 合浦까지 가서 十八日에 日本再征의 幕은 열리고 말았다.

東路軍 四萬이 九百艘의 戰船을 分乘하여 合浦를 出發하였다. 五月三日이었다. 이제 再征日本의 幕은 열리고, 이때는 말을 수 없는 狀態에 突入하였다. 五月三日 東路軍 四萬兵을 태운 戰船 九百艘을 出發하였다. 그러나 東路軍은 곧바로 日本으로 向하지 않고 巨濟島에 當分間 碇泊하였다. 日氣關係인지? 물어 보아, 實은 六月中旬에 江南軍과 壹岐島에서 合流한다는 豫定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五月二十一日에 東路軍의 一部가 上陸한 部隊는 高麗軍이 日本은 年前에 無學祖元이라 宋僧이 幕府의 執權인 北條時宗의 書狀을 받고 日本에 건너 後로 中國의 南部地方에 狀況에서도 構이지 아니하였다. 一二年一月에 世祖 후 비라이는 諸將에게 日本遠征의 進發令을 내렸다. 이때 江南軍의 總司令官으로 蒙古將軍아 라간(阿刺罕)을 任命하였다. 三月二十二日, 諸將은 燕京을 出發하는데 世祖는 特別히 訓戒하였다.

「日本은 우리 나라의 使者를 留置시켜, 보내주지 않았다. 朕이 卿들에게 遠征을 命한 것은 그 때문이다. 또, 朕이 漢人의 말을 들은 즉, 남의 나라를 取하는 일은 그 人民과 土地를 얻기 위함이라 하니, 實로 그러하다. 더욱이나 다 음의 일은 朕이 特別히 憂慮하는 것이로다. 卿들은 不和에 빠지는는 안될 것이다. 萬若 日本人이 卿들과 交涉할 경우에는 언제나 同心協謀해서 한 입과 같이 對答할 것이니라.」

이래서 東征의 大命이 내리고 드디어 그 一步를 發하게 되었다.

한편 高麗에서는 三月中旬에 金方慶이 合浦(馬山)를 向해 進發하였고, 四月에는 忠烈王이 合浦까지 가서 十八日에 日本再征의 幕은 열리고 말았다.

東路軍 四萬이 九百艘의 戰船을 分乘하여 合浦를 出發하였다. 五月三日이었다. 이제 再征日本의 幕은 열리고, 이때는 말을 수 없는 狀態에 突入하였다. 五月三日 東路軍 四萬兵을 태운 戰船 九百艘을 出發하였다. 그러나 東路軍은 곧바로 日本으로 向하지 않고 巨濟島에 當分間 碇泊하였다. 日氣關係인지? 물어 보아, 實은 六月中旬에 江南軍과 壹岐島에서 合流한다는 豫定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五月二十一日에 東路軍의 一部가 上陸한 部隊는 高麗軍이 日本은 年前에 無學祖元이라 宋僧이 幕府의 執權인 北條時宗의 書狀을 받고 日本에 건너 後로 中國의 南部地方에 狀況에서도 構이지 아니하였다. 一二年一月에 世祖 후 비라이는 諸將에게 日本遠征의 進發令을 내렸다. 이때 江南軍의 總司令官으로 蒙古將軍아 라간(阿刺罕)을 任命하였다. 三月二十二日, 諸將은 燕京을 出發하는데 世祖는 特別히 訓戒하였다.

日本史에서 본 東征記

~ 6 ~

東路軍 四萬이 九百艘의 戰船을 分乘하여 合浦를 出發하였다. 五月三日이었다. 이제 再征日本의 幕은 열리고, 이때는 말을 수 없는 狀態에 突入하였다. 五月三日 東路軍 四萬兵을 태운 戰船 九百艘을 出發하였다. 그러나 東路軍은 곧바로 日本으로 向하지 않고 巨濟島에 當分間 碇泊하였다. 日氣關係인지? 물어 보아, 實은 六月中旬에 江南軍과 壹岐島에서 合流한다는 豫定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五月二十一日에 東路軍의 一部가 上陸한 部隊는 高麗軍이 日本은 年前에 無學祖元이라 宋僧이 幕府의 執權인 北條時宗의 書狀을 받고 日本에 건너 後로 中國의 南部地方에 狀況에서도 構이지 아니하였다. 一二年一月에 世祖 후 비라이는 諸將에게 日本遠征의 進發令을 내렸다. 이때 江南軍의 總司令官으로 蒙古將軍아 라간(阿刺罕)을 任命하였다. 三月二十二日, 諸將은 燕京을 出發하는데 世祖는 特別히 訓戒하였다.

高麗軍이 처음 上陸한 地點은 世界村 大明浦라 한다. 그러나, 이 世界村 大明浦에 대해서 日本의 史學界에서 懷疑를 가지고 있다. 『高麗史節要』나 『高麗史列傳 金方慶』編에 記錄된 이 『世界村 大明浦』는 日本의 學者에 따라 그 見解가 區區하다. 黑田俊雄 氏의 『蒙古襲來』에 의하면, 池内宏 氏는 世界村을 『對馬島의 東海岸에 있는 上縣郡 佐賀村의 大明神浦일 것이다』고 하는데 『세카이(世界)와 사가(佐賀)』는 音이 近似하기 때 문이라 하지만 音이 비슷하다 는 說은 味酸하다. 反論으로 『理由없이 일부로 東便海岸에 上陸했느냐? 하는 解釋은 不自由스럽다』하고 中村榮孝 氏

兵船은 三五〇艘, 보름째라도 入船과 出船이 頻多한 이 港口의 안팎을 攷 攷하고 있었다. 六月中旬에 壹岐島에서 東路軍과 合流하게 될 江南軍은 六月十八일에야 겨우 主力船團이 日本으로 進發하기 始作했다. 그것은 主將인 阿刺罕이 出發前에 急病에 걸려, 阿塔海가 이에 代하는 事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阿塔海는 六月二十六일에 任命되었기 때문에, 結局 江南은 前後 十餘日에 걸 쳐 차례로 進發하였다. 六月末에 江南軍의 主力은 日本의 히라도(平戶島)에서 五島列島一帶의 海上에 威容을 나타냈다. 그래서 一部分이 東路軍과 合勢해서 壹岐島를 攻擊했다. 이때, 壹岐島의 戰場은 새 도우라(瀬戸浦)의 海陸이었는데, 그 중에도 六月二十九일의 싸움과 七月二일의 싸움이 가장 激烈하였다. 二十九日에는 守護少貳 經資가 그의 父 資能이 負傷되고, 아들 資時가 戰死했다. 이때 사쓰마(薩摩)의 시마즈(島津久經)와 長久의 兄弟들도 九州의 兵으로 奮戰했다. 다음 二일의 戰鬪에는 마쓰우라도(松浦黨) 소노기(彼杵), 지바(千葉), 다카기(高木), 류조지(龍造寺) 등의 兵力數萬이 參加하였다 하며, 이 또한 熾烈하였다. 壹岐의 戰鬪가 끝난 후, 東路軍은 江南軍과 平戶方面에서 會同하였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그 후에는 二十日以上이나 兩軍은 平戶島에서 五島方面의 海上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二十七日이나 되어서 그 主力은 肥前鷹島로 移動하였다. 鷹島에 移動한 것은 그곳에서 大舉로 博多灣에 上陸하기 위한 準備行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元軍의 行動은 納得이 가지 않은 곳이니 무도 많았다. 東路와 江南의 兩軍이 合流한 時日에 錯誤는 있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船上生活에서 被勞에 지친 大軍

을 더욱이나 夏節에 傳染病이 發生하기 쉬운 時期에, 一個月이나 平戶와 鷹島의 海上에서 歲月을 虛送했다는 點은 理解하기 어려웠다. 果然 元軍의 意圖는 無作定 上陸해서 交戰을 하자는 생각이었는지? 아무도 推測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혹은 元軍이 大船團으로 眼前에서 威容을 보여서 日本으로 하여금 服屬의 交涉을 促進하는 意向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元軍의 諸將이 燕京을 出發할 때 元帝 世祖의 訓令中에는 「交涉을 豫想하라」는 意向이 多分이 內包되어 있었으니 彼我 双方의 戰意를 考慮해서 可級の 事態를 좋은 方向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얼마만의 苦心과 配慮, 그리고 意志의 統一이 必要한 듯 하였다. 그로부터 四日... 閏 七月一日이었다. 前日 夜 밤중부터 불기 始作한 北西風은 밤이 깊음에 따라, 더욱 사나워져, 바다 는 狂波로 變하여 風濤는 戰船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元船의 漂沒이 時間을 두고, 그 數가 늘어나고 數萬의 軍兵은 파도에 휘말려 近方의 작은 섬의 海濱으로 밀려나간 數도 數千名은 되었다. 范文虎를 비롯해서 元軍의 諸將들은 제각기 堅固한 배를 끌고 타고 十餘萬의 士卒를 버리고 재빨리 逃亡해 버렸다. 指揮者를 잃은 元兵들은 餓鬼修羅의 가운데서도 相互間에 統率者를 互選해서 破損된 船舶을 急히 修理해서 本國으로 歸還하기도 했다. 이 記錄을 『元史』 日本傳에서 「十萬之衆 得還者 三人而已」라 하였고 世祖本記에는 「存十中二」라 하였으며, 阿塔海傳에 는 「喪師者 十中七八」이라 하였

이와 때를 같이하여 東路軍의 一部分인 三百餘艘(高麗船인 듯함)가 나가도(長門)를 승격했다고 하나 仔細한 알 수 없다. 元으로서 日本遠征의 第二軍團이라 하기 보다는 오히려 主力이 되어야 할 江南軍은 日本으로 交易船이 發着하는 慶元(지금의 寧波)과 그 前方인 舟山島의 定海에 集結하고 있었다. 江南軍의 兵力은 十萬, 그

이 記錄을 『元史』 日本傳에서 「十萬之衆 得還者 三人而已」라 하였고 世祖本記에는 「存十中二」라 하였으며, 阿塔海傳에 는 「喪師者 十中七八」이라 하였

아은 結果라 하겠다. 이렇게 元軍이 難破潰走한 事實을 알게 된 日本軍은 殘兵의 掃蕩에 汲汲하였다. 勿論 掃蕩이라 하는 말이 듣기는 좋지 만 武士들이 勇躍하고 나선 動機는 이 機會에 元兵의 머리 한 두개라도 取해서 恩賞을 입자는 野心의 所致였다. 少貳가 개스개(景資)를 大將으로 하는 九州의 武士들은 제각기 警固區域에 배를 타고 다카시마(鷹島) 近方을 襲擊하여 殘兵數千名에게 猛烈한 攻擊을 가하였다. 五日에서 三日間 繼續된 激戰에서 降伏한 元軍의 捕虜는 千餘名이라고도 하고, 혹은 三千餘名, 또는 數千名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日本側은 各自가 生捕한 數를 登錄만 하고, 살려 두어도 所用이 없다. 는 뜻에서 博多의 나가가와(那珂川) 近處에서 全部를 斬首해 버렸다. 이래서 博多에서 今津, 鷹島의 對岸인 미쿠리야(御厨)의 지사키(千崎)에서 히라도(平戶)方面까지 元兵의 遺骸는 무더 무더이로 남겨져 있었다. 至今 도 今津의 北方인 砂濱의 松原에 있는 「蒙古塚」은 그들의 遺骨을 무덤이라 한다. (다음호에 계속) (元榮記)

이와 때를 같이하여 東路軍의 一部分인 三百餘艘(高麗船인 듯함)가 나가도(長門)를 승격했다고 하나 仔細한 알 수 없다. 元으로서 日本遠征의 第二軍團이라 하기 보다는 오히려 主力이 되어야 할 江南軍은 日本으로 交易船이 發着하는 慶元(지금의 寧波)과 그 前方인 舟山島의 定海에 集結하고 있었다. 江南軍의 兵力은 十萬, 그

이와 때를 같이하여 東路軍의 一部分인 三百餘艘(高麗船인 듯함)가 나가도(長門)를 승격했다고 하나 仔細한 알 수 없다. 元으로서 日本遠征의 第二軍團이라 하기 보다는 오히려 主力이 되어야 할 江南軍은 日本으로 交易船이 發着하는 慶元(지금의 寧波)과 그 前方인 舟山島의 定海에 集結하고 있었다. 江南軍의 兵力은 十萬, 그

원색인쇄 · 사진제판 · 활판
경인쇄 · SYSTEM
文旺出版社
社長 金秉默
(翼元公派)
安東金氏江陵地區宗親會長
강원도 강릉시 성내동 19-1
☎ 2-3670, 5370 (야간) 3-3651

翼元公派
金在冕
서울 · 城東區 紫陽洞 695 한양A.P.T 5棟 105호
電話 : 446-6574

三別抄

【前號에서 계속】

임연(林衍)의 말을 듣고난 이장용(李藏用)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무선 대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장용은 한편으로 '임연의 처사가 지금 허당연하다'고도 생각되었다. 이장용의 생각에는 임연은 어디까지나 몽고에 대해서 적의(敵意)를 품고, 끝까지 저항하기 위해서 '장도(江都)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임연은 '몽상(蒙相)인연의 포악한 행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를 충고해 왔다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태자인 심(諱)이 몽고에 입조하였다. 이때, 참정(參政) 채정(蔡楨)과, 승선(承宣) 임무간(林茂幹)·대장군(大將軍) 장자(張子)·관낭장(內官) 김자정(金子貞)·견룡행수(牽龍行首) 나유(羅裕)·서장관(書狀官) 학(學) 김응문(金應文) 등이 수행하였다.

이러한 때에 거사(擧事)의 함성을 올리는 것이 절호의 시기라고 임연은 생각하였다. 「이미 왕군은 삼별초의 정예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이제 와서 이 재상의 생각은 어떠한 간에 이 임연은 결심한 바 오래 되었으니, 이제 이재상께서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의 없음을 저 보고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임연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이장용의 생각도 자신의 반대가 오히려 사태를 불안으로 이끄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번 거사는 가장 온당한 처

사라 생각하오, 그러나 국왕

의 유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考慮)가 필요할 것 같소, 만일에 이러한 처사를 취했다가 세조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그때 해양후(海陽侯) 임연(은 반연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번 임연은 모를지 왕의 병약(病弱)을 빌려서 별궁(別宮)으로 옮기고 폐립(廢立)을 단행함이 가장 온건한 처사가 아닐까? 이장용은 이렇게 생각하오.

이장용의 말을 듣고난 임연은 잠시 동안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이장용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태자가 없는 사이에 한시(漢時) 거사를 단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원종의 거처를 별궁으로 옮기고, 무장한 삼별초를 배치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게 하고는 안경공(安慶公)을 왕위에 올렸다.

이 일이 있은지 수일 후에 이장용은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김방경(金方慶)을 차차가서 함께 원종을 배양하였다. 「일마 가지 않아서, 복위(復位)하시도록 노력할 것이오니, 당분간 참아 주십시오,」

이장용은 이러한 말로 원종을 위로 하였다. 후리 후리한 키에 조금도 변함없는 안색으로 이장용의 뒤에 서 있는 김방경도, 이 말의 뒤를 이어, 힘찬 분노의 눈초리로 상대편의 벽을 쏘아 보면서 입을 열었다. 「임연 하나를 죽이는 일은 어렵지 아니 하오나, 일이 잘

못되면 세조의 오해가 두려우니 당분간 참고 지내는 것이 좋을 까 하나이다.」 김방경의 말은 간단 하면서도 무엇인가 '부서운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 「고 생각되어, 원종이나 이장용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종은 김방경을 이장용과 같은 인물로 보지 아니 하였다. 이장용은 1120년 신유(辛酉)생이며 김방경은 1122년 임신(壬申)생으로 이장용보다는 11세의 연하(年下)이니 이때, 이장용은 벌써 69세의 노령이었다.

이장용은 고종(高宗) 때 문과에 급제해서 투철한 두뇌로 국정을 요리해 왔던 것으로 보아, 그 도량에 비해, 절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점으로 평가 되어 왔기에 그는 나라의 초석(礎石)이 되고 동양(棟樑)이 될 수 있는 인물은 김방경밖에 없었다고 일상 생각하고 있었

고 원종도 또한 이 두 사람의 뜻을 같이 하고 힘과 지혜를 합쳐서 임연이 하고 있는 일을 막고, 원종을 모야 장을 왕으로 받드는 큰 행사를 거행할 때, 별안간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폭풍우가 소다져 나무뿌리가 뽑히고, 기와가 하늘로 날아가는 큰 번개가 있었다.

그해 7월에 창은 신왕(新王)으로서 임연을 교정(敎定) 별監으로 지위를 높이고 임연은 다시 원종을 김개(金鵬)의 옛집으로 옮기게 하고는 원종이 소지하는 내로진보(內格珍寶)를 차지하였다. 「원종은 삼일 만에 임연은 다시 원종의 앞에 나타나서, 험박하고 몽고의 세조에게 올릴 표문(表文)을 쓰라고 강요하였다.」 원종은 할 수 없는 뜻을 들었으나, 손이 떨리고 마음은 진

정이 되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그러나 임연도 당당한 기색이었다. 임연이 표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대로 쓰라'고 요청하자 원종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붓을 잡았다. 「신(臣)은 일찍기 성신(盛臣)에 참신(參)하와 님은 신(臣)은 충을 입사(入)고 항상 솔서(率)해서, 기리 불복(不)코져 생각하였으나, 오늘에 이르러도 몸에 병이 들어 다방면으로 병을 구(救)하고저 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 캐유될지 알 수 없아오며 이러한 일로 후이나, 불행이 올까? 하여 앞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여야 되겠는 데 원자(元子)는 입조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아, 소방(小邦)의 보리(保釐)를 비워 두기 어렵사옵고, 더구나, 신의 부(父)는 일찍이 조정의 전고(祖宗典故)에 의거해서 신에게 위촉하기를 채(遞代)에 있어서 먼저 아우에게 전함이 마땅하다. 함으로, 이제 신의 아우 안경공(安慶公)에게 맡기려 하옵는데, 그는 세번이나 천정(天庭)·몽고(蒙古)에서 폐하를 친히 배움고, 성종의 특사를 입어, 백성의 바라는 바가, 동하게 후(諸侯)의 직책을 감수하겠(다 하므로) 이에 유훈(遺訓)을 받들고 또 여러 사람의 말을 좃가서, 지난 6월 23일 2일에 그에게 국사를 맡게 하였나이다.」

임연의 성화대로 표문을 쓴 원종은 붓을 놓았다. 또 신왕으로 올림된, 창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써서 주상(主上)으로 하였다. 「신(臣)의 형, 식(植)은 앞아서 기동(奇動)이 어려우며, 갑자(甲子) 음양(陰陽)의 침해(침)로 통중(重)이 발작(發)하여 조석(朝)의 근심(近)을 알지 못하게 되어, 마침내 중부(重務)를 잔질(戩)에 개(開) 위촉(命)함으로 신은 실로 놀라움(驚)이 더하여 이를 사양(謝)하려 하였으나 신의 형이 이르

기를 선부(先父)의 유훈(遺訓)에 있어서 먼저 아우에게 전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니, 그대에게 국사를 지키게 한다. 함으로 신은 이 뜻을 물리치지 어려워, 부득이 본의는 아니으나, 조심스러운 마음(心)을 금(禁)하오이다.」 이러한 창(王)의 표문은, 만일의 경우에 발명을 하자는 한낱 수단이기도 했다.

임연은 이 표문을 봉정하기 위해서 그의 심복의 제1인자(第一)인 중서사(中書舍人)·곽여필(郭汝弼)을 영정(燕京)에 파견하였고 영정에 갔던 태자는 돌아오는 길에 파사부(婆娑府)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때의 주(州)의 관노(官奴) 정오부(丁伍浮)가 몰래 압록강을 건너가서 태자에게 임연이 국왕을 폐하고 안경공(安慶公)을 올림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태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의혹을 가진 태자의 태도를 정오부는 말하기를 「지금 고주사(告奏使)·곽여필의 의주에 와 있어온데, 청컨대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만나 보게 하소서.」

이러한 정오부의 간청에 태자는 즉시 몽고의 사자 7명(七)을 파견하여 그에게 가서 곽여필을 잡아오게 하고, 또 방오역(方五)의 정비(鄭庇)를 잡아 추궁하니 곽여필은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사실을 토로하게 되었다. 「곽여필로 하여금 전후(前後)의 사정을 듣고난 태자는 통곡(痛哭)하면서 다시 영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태자가 영정까지 가는 대도한 달이나 걸렸다. 태자는 즉시 세조를 알현하고, 고려의 국왕(國王)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해 8월에 태자는 대장군(大將軍) 장자(張子)를 파견하여 「부왕(父王)의 자리를 복위케 하라, 그렇지 못하면, 순안후(順安侯) 종(宗)·역시(역) 태자의 아우(弟)를 세우라」는 내용의 유시를 보냈다.」

이러한 일에 뒤이어 이장용은 절일(節日)을 축하하기 위해서 몽고에 왔고 태자와 세조는 이장용으로 부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세조는 알탈아부화(汗脫兒不花)와 이악(李諤) 등을 고려의 서장관(西長官) 김응문(金應文)과 함께 파견하여 고려의 문무백관(文武百官)에게 조유(詔諭)하였다. 「태자 왕심(王諱)의 말에 의하면 너희나라는 마음대로 국왕을 폐하고 그의 아우 안경공(安慶公)을 국왕으로 삼았다. 하니, 짐(朕)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거짓으로 생각하여 믿지 아니 하였다. 국왕(國王)은 왕위를 계승한 후로 과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또 실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간(諫)하고, 그대도 고치지 않으면 마땅히 조정(朝廷)에 알리어 모든 처분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를 조정(朝廷)에 알리지도 않고, 신하로서 마음대로 왕을 폐하하니, 자고로 언제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 이제 알타이(Altai)와 이악(李)을 파견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상세히 묻고져 하니, 만약에 잘못 전하면 어떻게 책망(責)을 면하랴? 앞으로 국왕과 태자와 그 족속에 이르러까지 조금이라도 상상하는 일이 있다면, 짐은 반드시 용서함이 없을 것을 확실하게 시하니, 절의 뜻을 살피고, 신자의 도리를 생각하여, 자세히 알리도록 하라.」

조사(詔書)의 내용을 대략이러 하였다. 이 조서는 임연은 물론 이장용도 같이 보았고, 이때 임연은 몹시 당황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元榮記)

이러한 일에 뒤이어 이장용은 절일(節日)을 축하하기 위해서 몽고에 왔고 태자와 세조는 이장용으로 부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세조는 알탈아부화(汗脫兒不花)와 이악(李諤) 등을 고려의 서장관(西長官) 김응문(金應文)과 함께 파견하여 고려의 문무백관(文武百官)에게 조유(詔諭)하였다. 「태자 왕심(王諱)의 말에 의하면 너희나라는 마음대로 국왕을 폐하고 그의 아우 안경공(安慶公)을 국왕으로 삼았다. 하니, 짐(朕)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거짓으로 생각하여 믿지 아니 하였다. 국왕(國王)은 왕위를 계승한 후로 과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또 실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간(諫)하고, 그대도 고치지 않으면 마땅히 조정(朝廷)에 알리어 모든 처분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를 조정(朝廷)에 알리지도 않고, 신하로서 마음대로 왕을 폐하하니, 자고로 언제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 이제 알타이(Altai)와 이악(李)을 파견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상세히 묻고져 하니, 만약에 잘못 전하면 어떻게 책망(責)을 면하랴? 앞으로 국왕과 태자와 그 족속에 이르러까지 조금이라도 상상하는 일이 있다면, 짐은 반드시 용서함이 없을 것을 확실하게 시하니, 절의 뜻을 살피고, 신자의 도리를 생각하여, 자세히 알리도록 하라.」

조사(詔書)의 내용을 대략이러 하였다. 이 조서는 임연은 물론 이장용도 같이 보았고, 이때 임연은 몹시 당황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元榮記)

이러한 일에 뒤이어 이장용은 절일(節日)을 축하하기 위해서 몽고에 왔고 태자와 세조는 이장용으로 부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세조는 알탈아부화(汗脫兒不花)와 이악(李諤) 등을 고려의 서장관(西長官) 김응문(金應文)과 함께 파견하여 고려의 문무백관(文武百官)에게 조유(詔諭)하였다. 「태자 왕심(王諱)의 말에 의하면 너희나라는 마음대로 국왕을 폐하고 그의 아우 안경공(安慶公)을 국왕으로 삼았다. 하니, 짐(朕)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거짓으로 생각하여 믿지 아니 하였다. 국왕(國王)은 왕위를 계승한 후로 과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또 실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간(諫)하고, 그대도 고치지 않으면 마땅히 조정(朝廷)에 알리어 모든 처분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를 조정(朝廷)에 알리지도 않고, 신하로서 마음대로 왕을 폐하하니, 자고로 언제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 이제 알타이(Altai)와 이악(李)을 파견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상세히 묻고져 하니, 만약에 잘못 전하면 어떻게 책망(責)을 면하랴? 앞으로 국왕과 태자와 그 족속에 이르러까지 조금이라도 상상하는 일이 있다면, 짐은 반드시 용서함이 없을 것을 확실하게 시하니, 절의 뜻을 살피고, 신자의 도리를 생각하여, 자세히 알리도록 하라.」



다음 호에 계속 (元榮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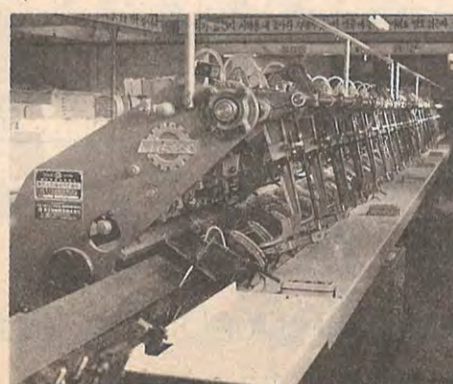
族譜 印刷의 元祖



族譜·古書 印刷·製冊

回 想 社

大田市 東區 中洞 47-4
☎ 253-9881 ~ 3 自宅 72-7166
서울連絡所 ☎ 590-9851
郵便番號 300-00



丁合機(日産)

1. 全國族譜·文集 90%以上刊行, TV와 新聞紙上에서 確認한 客觀性
2. 創業主의 直接指導로 同一한 商號, 同一한 場所에서 族譜만들기 의결 33年, 昇華시키는 獨步的인 企業
3. 何時라도 閱覽할수 있는 各姓族譜가 保管된 圖書室
4. 國際字母 書藝大會에서 金賞을 受賞한 國寶的인 書體使用
5. 僻字, 古字를 即席彫刻하는 正確한 字母, 多樣한 活字, 萬能의 組版
6. 原色分解·사진製版·케스 等 一貫作業하는 國內第一 綜合工場
7. 廉價奉仕하는 高度의 技術과 最尖端 自動機械施設 完備
8. 國內著名한 碩學을 모시고 時代感覺에 맞는 翻譯과 編輯
9. 原稿淨書·編輯·校正業務 代行 및 指導, 校正室·宿所 便宜提供
10. 一針一糊 以永册命의 精神으로 만드는 不可不嚴의 姿勢
11. 緻密한 計劃과 徹底한 管理로 秋毫의 瑕疵없는 完壁한 家實製作
12. 自体資本으로 오랜 經驗과 信用을 자랑하는 文化暢達의 旗手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回想社의 特徵

豊饒한 來日을 向해 民族史觀을 定立하는 血統整理의 産室이자 東洋文化의 精隨

無限한 創意로 民族固有의 傳統倫理를 昇華시키는 獨步的인 企業